

현안과 과제

■ 투자 여건 개선으로 투자 확대 유도
-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내수 부진'

< 요약 >

■ 도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1.34%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0.30%p로 하락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p로 금융위기 이전(3.25%p) 대비 1.67%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81%p)했다.

■ 2014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2014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리스크는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지속'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80%가 넘는 기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5%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 성과 및 방향)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를 꼽았다.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 성과와 전망) 매출과 이익 등 상반기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하반기 기업의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80%에 근접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를 상회했다.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9%에 근접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업은 84%에 근접했다. 또한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4%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하반기 원/달러 환율 '1,001~1,100', 엔/달러 환율 '100~11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0% 내외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6%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1으로 6개월 전 114.3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하였으나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7로 6개월 전 98.4 대비 24.7p 하락했으나 투자심리지수는 160.1로 6개월 전 161.0 대비 소폭 하락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7.5로 6개월 전 143.5 대비 6.0p 하락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7.0으로 6개월 전 101.7 대비 5.3p 상승했다. 한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1로 6개월 전 66.9보다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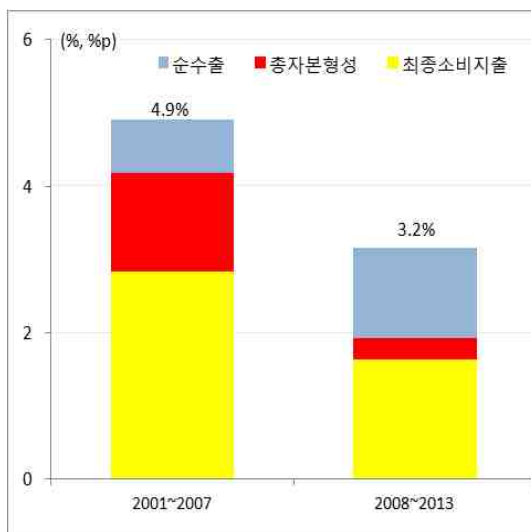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와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투자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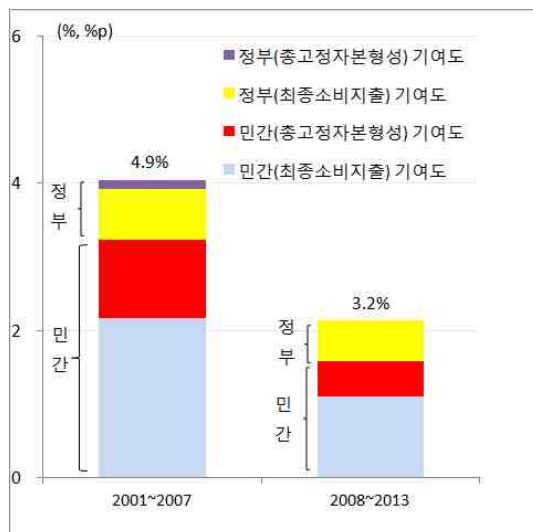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기간 중 평균)에서 금융위기 이후 3.2%(기간 중 평균)로 하락함
 -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상승했으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평균 2.84%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3년) 1.63%p로 하락
 -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1.34%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0.30%p로 하락
-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p로 금융위기 이전(3.25%p) 대비 1.67%p 하락
 -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81%p)

< GDP 성장률 및 지출부문 기여도 추이 > < 투자와 소비의 공공/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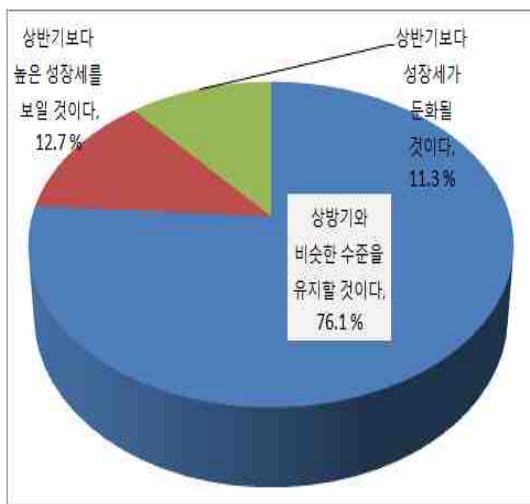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2014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1) 국내외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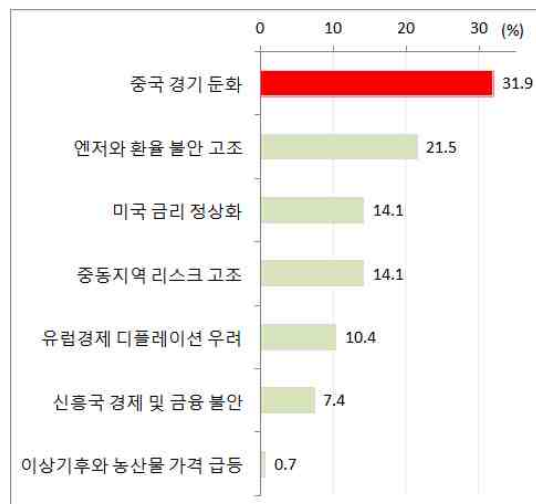
- (국외 경제 전반)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세계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 경기 둔화' 및 '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를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지적
 - 하반기 세계 경제 :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76.1%를 차지했고,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12.7%를 기록
 - 한편,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1.3%를 차지하여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 불안 요인 : '중국 경기 둔화와'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미국 금리정상화와'중동지역 리스크 고조'가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냈음
 -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31.9%의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는 전체 설문 응답의 21.5%를 차지하여,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엔저 현상의 지속과 환율 불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금리정상화'와 '중동지역 리스크 고조'도 각각 전체 응답 기업의 14.1%가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여 미국의 본격적 출구전략 시기 및 중동발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2014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4년 하반기 대외 불안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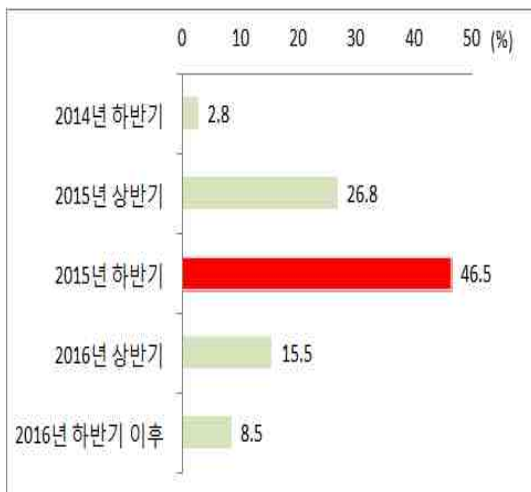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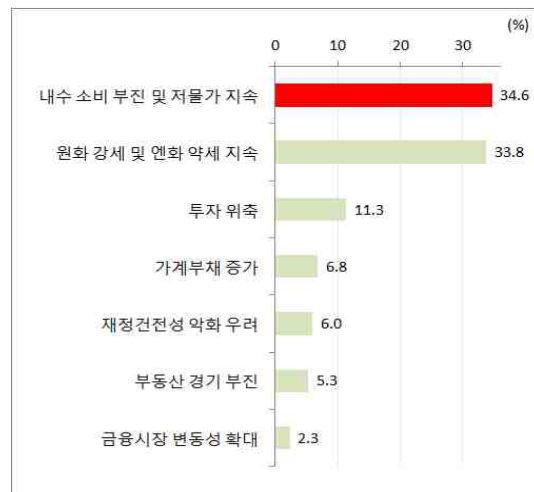
- (국내 경제 전반)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본격적인 회복세는 2015년 하반기 이후로 응답.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을 지적
 - 하반기 국내 경제 : 하반기 한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패치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84.5%를 차지
 - 국내 경제의 성장이 하반기에 침체국면(더블딥)으로 진입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4.1%였고, '고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4%에 불과
 - 본격적 경기 회복 시기 :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 46.5%의 기업이 '2015년 하반기'라고 응답하였음
 - '2014년 하반기'로 응답한 기업은 2.8%, '2015년 상반기' 26.8%, '2016년 상반기'는 15.5%, '2016년 하반기 이후' 8.5%로 나타나,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경영 위협 요인 :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반기에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34.6%)'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33.8%)'을 지적했음
 - '투자 위축'은 11.3%를 차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 6.8%,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6.0%, '부동산 경기 부진' 5.3%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2.3%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4년 하반기 경영 위협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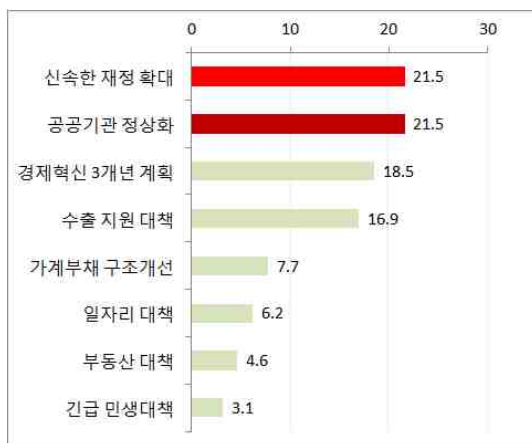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2) 국내 경제 이슈

○ (정부 정책)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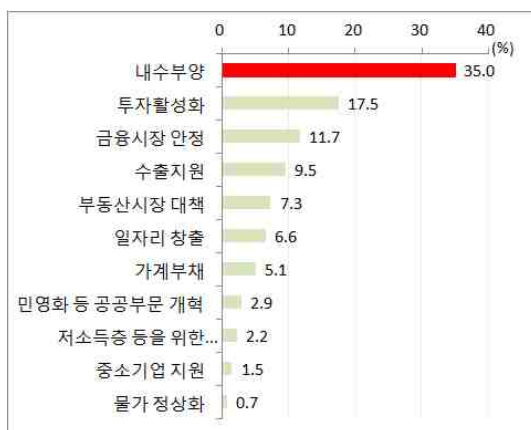
- 상반기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가 각각 21.5%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8.5%, '수출 지원 대책' 16.9%, '가계부채 구조개선' 7.7%, '일자리 대책' 6.2%, '부동산 대책' 4.6%, '긴급 민생대책' 3.1%의 순으로 나타남
-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내수 부양(35.0%)'과 '투자 활성화(17.5%)'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 이외에 '금융시장 안정' 11.7%, '수출 지원' 9.5%, '부동산 대책' 7.3%, '일자리 창출' 6.6%, '가계 부채' 5.1%,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 2.9%,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 확대/규제 개혁' 2.2%, '중소기업 지원' 1.5%, '물가 정상화' 0.7%의 순으로 응답

< 가장 잘한 상반기 정부 정책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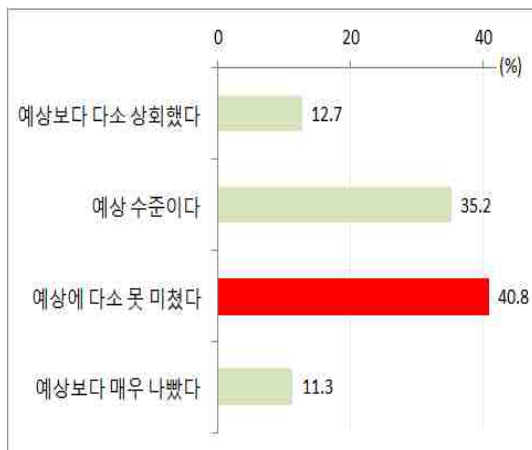
주: 복수 응답 기준.

3) 하반기 경영 예측

○ (상반기 경영 성과와 하반기 매출 전망) 매출, 이익 등 상반기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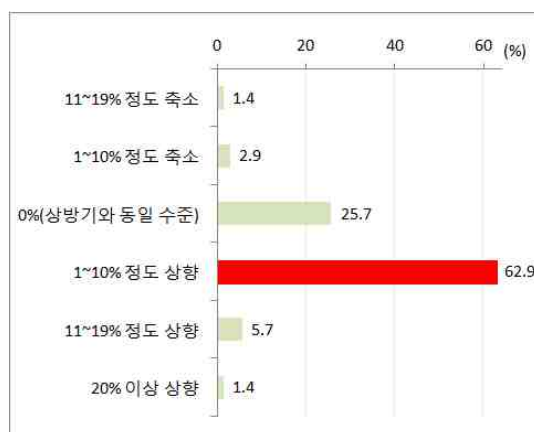
- '예상보다 다소 못 미쳤다'라는 응답은 40.8%, '예상보다 다소 상회했다'라는 응답은 12.7%, '예상 수준이다'는 응답은 35.2%,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는 응답은 11.3%를 차지
-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왔다고 응답한 기업(12.7%)이 제시한 이유는 '비용 절감'과 '수출 호조'가 각각 33.3%로 가장 큰 이유였음. '내수 호조' 22.2%, '환율, 금리 효과' 11.1%로 응답
- 하반기 매출 목표를 상반기 대비 '1~10% 정도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62.9%를 차지
 -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은 25.7%, '11~19% 정도 상향' 5.7%, '20% 이상 상향'하겠다는 기업은 1.4%로 나타남
 - 한편, 하반기 매출 목표를 '1~10% 정도 축소'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9%, '11~19% 정도 축소'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4%를 차지

< 상반기 경영 성과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하반기 매출 목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전체 응답 중 70% 내외의 기업들이 하반기 원/달러 환율 '1,001~1,100원', 엔/달러 환율 '100~110엔 미만'으로 전망.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은 40% 내외 기업이 1,050원 이상으로 응답

- 원/달러 환율 : 한편 '901~1,000원'으로 전망한 기업은 15.7%, '1,101~1,200원'을 전망한 기업은 4.3%, '1,201~1,300'을 응답한 기업은 1.4%를 차지
- 2014년 1월~6월 30일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기준)은 1,049.4원임

원/달러 환율	901~1,000원	1,001~1,100원	1,101~1,200원	1,201~1,300원
비중(%)	15.7	78.6	13.6	1.4

- 엔/달러 환율 : 하반기 엔/달러 환율은 전체 응답 기업 중 68.6%의 기업이 '100~110엔 미만'으로 전망
- '90~10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은 30.0%, '110~120엔 미만'은 1.4%를 차지
- 2014년 1월~6월 30일 기간 중 엔/달러 환율(일일 평균기준)은 102.5엔임

엔/달러 환율	90~100엔 미만	100~110엔 미만	110~120엔 미만
비중(%)	30.0	68.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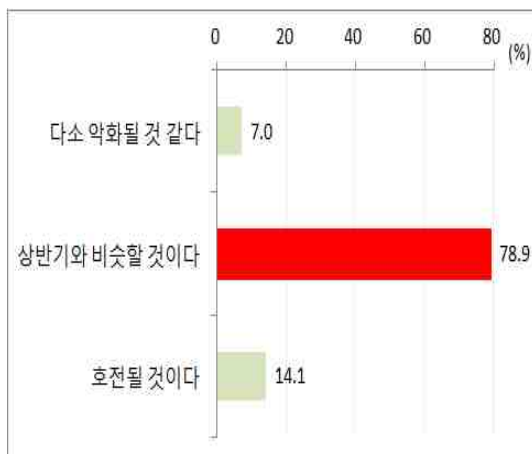
- 손익분기점 환율 :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36.5%의 기업이 1,000원 수준으로 응답
- 9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17.5%, 900원은 7.9%를 차지
- 한편 1,0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27.0%, 1,100원 11.1%를 기록.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38.1%를 차지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900원	950원	1,000원	1,050원	1,100원
비중(%)	7.9	17.5	36.5	27.0	11.1

○ (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 하반기 업체의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확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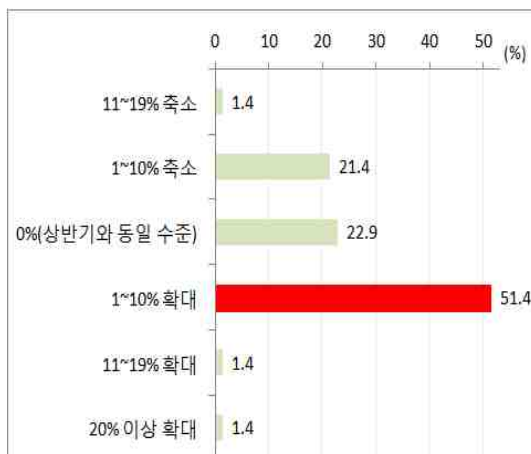
- 하반기 업체의 자금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8.9%로 가장 비중이 컸음
 - 하반기 자금 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 같다'고 보는 기업은 7.0%를 기록
 - 한편,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4.1%를 차지
- 하반기에 각 업체가 속한 내수시장 규모에 대해서 '1%~10%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라고 보는 기업이 22.9%, '1%~10%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1.4%, '11%~19%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4%를 차지
 - '11%~19% 확대'와 '20%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4%를 차지
- **회사채 금리** : 하반기에 3년 만기 회사채 AA- 금리에 대해서는 88.7%의 기업이 '3~4%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
 - '2~3%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은 11.3%를 차지
 - 2014년 1월~6월 30일 기간 중 회사채 AA- 금리(일일 평균)는 3.27%임

< 하반기 자금사정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하반기 내수시장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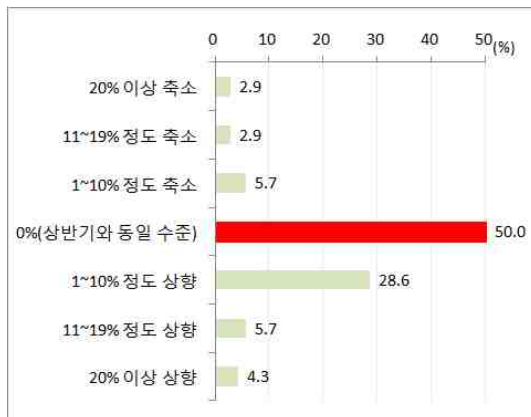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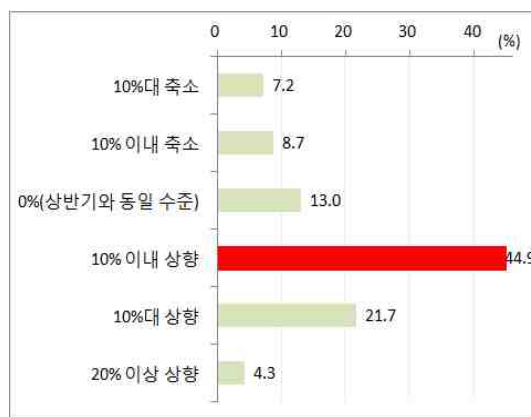
-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전체 투자규모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10% 이내에서 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또한 수익성 향상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응답
 - 하반기에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 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0%로 가장 큰 비중
 - 하반기 투자 규모를 상반기 대비 '1~10% 정도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8.6%, '11~19% 정도 상향' 5.7%, '20% 상향' 4.3% 차지
 - 한편, '1~10% 정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5.7%, '11~19% 정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2.9%, '20%이상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2.9%를 차지
 -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역시 '10% 이내에서 상향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4.9%로 가장 많았음
 - '10%대 상향'으로 응답한 기업은 21.7%, '20%이상 상향'으로 응답한 기업은 4.3%를 차지. '201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3.0% 차지
 - 반면 '10% 이내로 축소'로 응답한 기업은 8.7%, '10%대 축소'는 7.2%를 차지
 -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4%로 가장 많았음
 - '비상경경제체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18.3%, '매출 증대' 16.9%, '투자 증가' 1.4% 순으로 응답

< 하반기 투자 규모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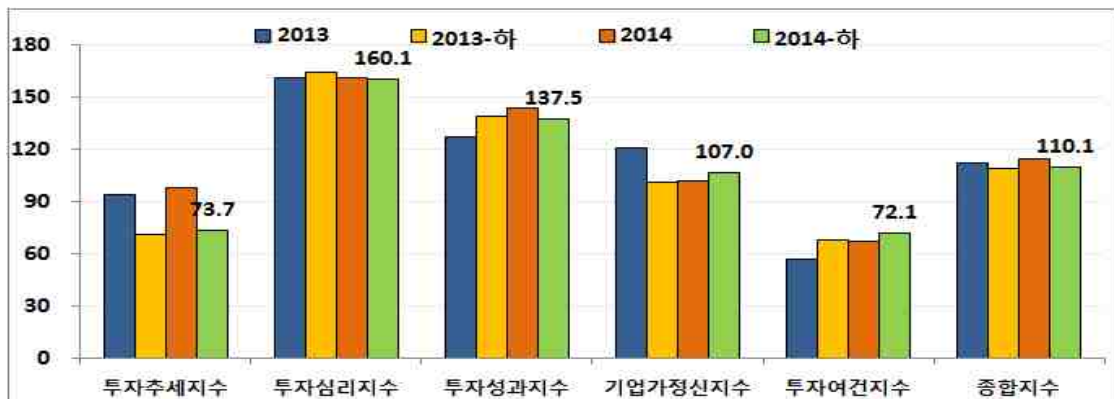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기업투자지수 평가

○ 국내 주요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2014년 상반기 대비 하락하였고,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도 크게 하락하였음.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침

- **종합지수 하락** :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1으로 하락. 국내 100대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2014년 하반기 수치가 올해 상반기 대비 하락
- **지수별 평가** : 2014년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기 힘든 상황
- **투자 실적 하락** :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7로 6개월 전 98.4 대비 24.7p 하락. 2014년 상반기 투자는 2013년 상반기 보다 줄었고,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투자 심리 양호** : 투자심리지수는 160.1로 6개월 전 161.0 대비 소폭 하락.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강하고,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
- **투자 대비 성과 미흡** : 성과지수도 137.5로 6개월 전 143.3 대비 6.0p 하락. 상반기 투자대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
- **기업가정신 상승** : 기업가정신은 107.0으로 6개월 전 101.7 대비 5.3p 상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여건 개선** :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1로 6개월 전 66.9보다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

< 기업투자지수 추이 >



주 : 1) 2013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2년 12월 10일~1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2) 2013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6월 24~28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3) 2014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12월 9~13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4) 2014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6월 20~27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4.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어,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투자 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도모

-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14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
 -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 기업 수익성 향상 → 고용 확대 →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

-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70% 이상의 기업이 1,000원 수준 이상으로 응답. 상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 수준인 1,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도 38%를 차지
- 기업들의 엔저 지속 등 환율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미세 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한 엔저 지속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셋째,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

-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응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적극적인 R&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함
- 또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홍유림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참고자료> 기업투자지수 산출 방법

○ 기업투자지수의 정의와 구성

- (정의) 기업투자지수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환경, 투자의지, 투자성과 등에 대한 기업의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지수화 하여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됨
- (목적)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투자에 대한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기업투자지수 계산 방법

- 투자지수 계산 방법

- 개별 투자지수 = '그렇다' 응답 비중 - '그렇지 않다' 응답 비중 + 100
- 예: '그렇다'가 60% 이고 '그렇지 않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개별 투자 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4년 6월 20일 ~ 2014년 6월 27일(6일간)
- 조사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경제신문공동 주최
- 조사 대상 : 매출액 기준 국내 10개 업종 100대 기업
- 조사 내용 : 하반기 경기 판단, 경영전망, 투자지수 관련 내용
- 응답 기업 : 71개 기업 (응답률 71%)

○ 기업투자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투자추세 지수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증가된 규모입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입니까?	(1)그렇다
투자여건 지수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십니까?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심리 지수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는 지속하시겠습니까?	(2)그렇지 않다
투자성과 지수	상반기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지수	지금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시겠습니까?	